

15~17일 여수서 한·중·일 이스포츠 국가대항전

박람회장 엑스포컨벤션센터서
항저우 AG 국가대표 등 참가
무료 현장 관람...체험 프로도

2023 한·중·일 이스포츠대회가 오는 15~17일까지 여수세계박람회장 내 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올해로 3회째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 3개국 선수단은 이스포츠 국가대항전을 펼친다. 정식 종목은 리그오브레전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에이펙스 레전드, 이풋볼 등으로 종목별 리그 상위 2개국의 결승전으로 진행된다.

세부 일정은 △15일 리그오브레전드와 이풋볼 예선전 △16일 이풋볼 결선,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에이펙스 레전드 예선전 △17일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리그오브레전드, 에이펙스 레전드 결선 순이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이스포츠 국가대표 선수들이 참여해 박진감 넘치는 경기로 치러질 것으로 기대된다.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종목에 출전하는 은메달리스트 권순빈, 김동현, 김성현, 최영재 선수와 부대행사인 국가대표 이스포츠 선수 토크쇼 '최고 그 이상의 투

지'에 참여하는 스트리트파이터5 금메달리스트 김관우 선수, FC 온라인 동메달리스트 박준혁 선수 등이다.

아울러 대회 기간 △배틀오브스쿨(리그오브레전드 학교대항전) △아빠의 청춘!(스타크래프트, 스트리트파이터) △최고 그 이상의 투지!(국가대표 이스포츠 선수 토크쇼) △이스포츠 팝업스토어 △이스포츠 체험프로그램 등의 부대행사가 마련돼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대회로 꾸며진다.

대회 기간 무료 현장 관람이 가능하며, 대회 영상은 유튜브, 트위치, 아프리카tv 등 한국e스포츠협회 공식 채널을 통해 생

중계된다. 대회와 관련된 정보는 한국e스포츠협회 홈페이지 및 SNS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대한민국에서 치러지는 경기인 만큼 이스포츠에 관심 있는 청소년과 시민들이 현장을 방문해 선수들에게 힘을 실어 달라"며 "앞으로도 여수시는 이스포츠 문화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중·일 이스포츠대회 역대 대회 종합우승은 1회(2021) 중국, 2회(2022) 일본이 차지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빈틈없는 산불 예방 드론 한몫
구례군, 드론 감시단 편성



구례군은 산불취약지역 모니터링을 위한 '산불방지 드론 감시단'을 편성해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산불방지 드론 감시단'은 3명 2개 조로 편성됐으며, 최신 열화상 카메라와 방송시스템을 갖춘 드론을 운영하고 있다.

감시단은 산림 인접지 마을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홍보 활동을 비롯한 농산부산물 소각 행위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27일부터 12월8일까지는 드론 감시단이 수집한 농업 부산물의 위치 정보를 활용해 읍면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함께 농업 부산물을 수거·파쇄해 산불 발생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했다.

군 관계자는 "산불은 진화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답이다"이라며 "산불로부터 군민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례=김성현 기자

태권도 국가대표 후보선수
구례군서 동계 전지훈련

구례군은 태권도 국가대표 후보 선수팀 52명(선수 48·지도자 4)이 지난 11일부터 오는 24일까지 구례실내체육관에서 경기력 향상을 위한 동계 전지훈련에 돌입했다고 12일 밝혔다.

구례군은 체육시설 이용 및 물품 등 훈련 편의 제공, 선수단 차량 지원, 관광 지원 등 지역 상권과 연계 가능한 인센티브 제도를 구비하고 전지훈련 팀을 대상으로 스포츠 마케팅에 힘쓰고 있다. 군은 향후 축구와 씨름팀의 전지훈련도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태권도 국가대표팀의 구례군 방문을 환영한다"며, "전지훈련의 매가, 구례에 머무는 동안 부상 없이 훈련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례=김성현 기자**



태권도 국가대표 후보 선수팀이 구례실내체육관에서 동계 전지훈련에 돌입했다.

구례군 제공

순천시, 지방의 국제화 '최우수' 멸종위기종 조류 보호 국제협력

순천시는 지난 11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주최한 '2023 지방의 국제화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실에서 진행된 이번 공모전은 전국 17개 광역시·도와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20일 1차 예선심사를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7개 결선 진출작을 선정했으며, 지난 11일 치러진 2차 결선 PT 심사에서 추진과정, 파급효과, 교류성과, 참신성 등을 평가했다.

순천시는 '멸종위기종 조류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한중일러 흑두루미 하늘길 연결 프로젝트 추진으로 국가 간 협력 강화 △국내 흑두루미 서식지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 간 협력 강화 △제11회 아시아 조류 박람회 개최로 탐조문화 확산 △전 세계 습지 도시 시장단 네트워크 구축으로 세계 습지도시 간 정보 공유 약속 등 현장 중심의 다양한 국제화 사업을 발표해 평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일본 NHK 방송국과 한국 주재 외신기자클럽에서 순천만의 보전과 흑두루미 보호 사례를 전 세계 160개국에 방송해 순천만의 국제적 인지도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국가 간, 지역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기후위기와 종소멸에 대응하고 사람도 새도 살기 좋은 미래 도시의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고흥군 '노인이 가장 살기 좋은 도시' 발돋움

어르신 건강관리·일자리 확대
고령자 복지 공공임대주택도

고흥군이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복지 시책을 추진하면서 전국에서 어르신이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발돋움해 나가고 있다.

고흥군은 인구 6만 2000여 명 가운데 노인 비율이 44%에 이르는 초고령화 지역이다. 그동안 고흥군은 △어르신 집구류 공공 세탁 서비스 △저소득 노인 틀니·임플란트 지원 △대기자 없는 노인 일자리 사업 △어르신 맞춤형 바우처 지원사업 △건강 100세를 위한 경로식당, 경로당 운영 지원 등 다양한 복지시책을 추진해 왔다.

이와 함께 어르신 건강관리를 위해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독감 무료 접종, 가정방문 노인 전담 주치의제, 읍면별 순회진료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저소득 어르신 틀니와 임플란트 지원사업'을 추진, 비용 부담으로 치과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어르신들의 구강 건강에도 힘쓰고 있다.

또 민선 8기 '일자리가 복지'라는 신념으로 '대기자 없는 일자리'를 추진해, 일하고 싶은 어르신이 조건만 되면 모두 일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사업을 대폭 확대해 어르신들에게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특히 올해 10월 준공된 '도양 노인건강



고흥군이 다양한 복지 정책을 통해 전국에서 어르신이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발돋움해 나가고 있다.

고흥군 제공

복지타운'이 기존 고흥읍에 소재한 '고흥군 실버타운'과 함께 노인복지의 양대 축 역할을 맡고 있다. 복합 노인복지시설인 도양 노인건강복지타운은 치매 전담형 장기 요양시설인 치매 전문요양원과 주간 보호센터, 60세 이상 어르신 누구나 이용 가능한 노인복지관을 갖추고 있다.

아울러 고흥군은 어르신이 살기 좋은 정주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고령자 복지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추진 중이다.

총 29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2027년까지 주거·복지 복합 건축물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돌봄 및 의료복지 시설과 임대주택 150호가 들어설 예정이다. 군은 본 사업이 완료되면 어르신들의 편안한 정주 여건 조성은 물론 사회복지 시설 운영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고령자

건강 복지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홀로 사는 어르신 상시 관리 시스템도 구축했다. 저소득 노인과 청각 장애인 가정 대상 '무선 초인등 설치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통합 인적망 희망잇고 발굴단', '우리 동네 해결사 복지공동체', '민·관 협력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 등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안전에 민관이 협력해 나가고 있다.

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추진해 섬마을이나 오지마을에 거주하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건강 100세 운동 힐링', '도서 노인 해피라이프', '농어촌노인 웰빙라이프 행복드림'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양기람 기자

수도시설 동파 방지대책 추진
광양시, 긴급조치 4개반 편성

광양시는 겨울철 한파로 인한 수도시설 동파를 예방하기 위해 상수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올 겨울철 한파에 따른 상수도 시설물 동파 피해를 예방해 시민들의 수도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대비하고, 고품질의 맑고 깨끗한 수도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13일까지 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등 상수도 시설물 전반에 걸쳐 사전 점검한다.

이를 통해 동결이나 파손이 예상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즉시 정비하고, 동파나 동결로 인한 출수 불량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상시점검반, 신고접수반, 누수복구반, 동결시설 대응반 등 긴급조치 4개 반을 편성해 동파 발생 상황 등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상수도와 직원 및 수도대행업소를 대상으로 동파 방지 및 조치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읍·면·동과 검침원 등을 통한 동절기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 안내 및 대처 요령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파 및 누수사고 신고 접수창구를 내년 3월 초까지 편성해 동절기 비상 근무체계를 유지기로 했다.

상수도 동파 누수와 관련해 불편 사항이 있을 경우 광양시 상수도과(주간 : 797-2533, 3585 야간 : 797-4963)로 신고하면 된다.

광양=안영준 기자